



예술과만남

2024 — Vol 167 04+05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포커스 <단명소녀 투쟁기>

연명담의 현대적 재구성 and 재해석

인터뷰 I Echo of Gyeonggi <노랫가락>

경기사나위 예술감독 김성진 · 작곡가 우효원

프리뷰, 셋 천년 경기를 춤으로 기리다, <경기회연(京畿會宴)>

담당자의 노트 경기아트센터 사무 현장을 접하다



구스타프 말러

(Gustav Mahler, 1860~1911)

오스트리아 작곡가 겸 지휘자.

질망감이나 염세관, 과거한 해학이나 초연한 탐미,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고독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탄식의 노래>, <천명의 교향곡>, <대지의 노래>

등이 그의 주요작품이다. 근대음악 발전의 과도기에

속한 인물로 오늘날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 교향곡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다.

Gustav_Mahler





몸 짓 의 대 화 ,
한 계 그 너 머 의 이 야 기

아름다운 선을 만들고
감정을 표현하는 최고의 피사체

인간의 몸만큼
많은 텍스트를 담고 있는 게 있을까?

세상에 없던 몸짓을 창조하고
영혼을 불태우며
끝나지 않을 춤선으로
경외와 감탄을 뒤흔들어 놓는
이들의 소통에

관객은 어느덧 예술의 본질에 다가간다

CONTENTS



GGAC's Theme

08

아트 인사이트

팔로워로 일상에 예술을
인스타그램 예술가 4인

12

포커스

현호정 《단명소녀 투쟁기》
연명담의 현대적 재구성과 재해석

16

인터뷰 I

끝없이 자아낼 노랫가락의 시작
Echo of Gyeonggi <노랫가락>
경기시나위 예술감독 김성진·작곡가 우효원

20

인터뷰 II

<고전적 음악, 오후 I>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

24

내다보기

휴(休), 여백과 물임
그리고 채움의 공간

On Stage

28

프리뷰, 하나

경기시나위 Weekend Concert
<오후 4시 : 다시, 청춘>
다채로운 테마 우리 음악 알리는 주말 콘서트

30

프리뷰, 둘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
말리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

32

프리뷰, 셋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회연(京畿會宴)>
천년 경기를 춤으로 기리다

34

리뷰, 하나

색다른 재미와 감동 전할 창작 희곡
그 매력의 발견
입체낭독극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

36

리뷰, 둘

끈질기게 파고드는 음악의 본질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

Art N Culture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비움과 채움의 예술

44

이달의 책과 음반

고맙고 따스한
예술의 어깨동무

46

컬처로드

일상의 여백을 채우고 메우는 예술
알테·노이에·모데르네, 뮌헨의 박물관 지구

50

예술 알고리즘

알고리즘과 개인을 벗어난
생성형 인공지능이 던지는 도전
AI가 내놓은 예술작품은 창작물인가?

54

#공감태그

#독자참여 #SNS공연리뷰

GGAC Story

58

GGAC VLOG

관계자 외 출입금지, 봉인 해제
백스테이지의 주인공 무대감독

60

담당자의 노트

경기아트센터 사무 현장을 접하다
홈페이지 담당자의 노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AR

4·5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예술과만남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2024 VOL.167 04+05

격월간 예술과만남 2024년 04+05월
발행처 경기아트센터
발행인 서춘기
편집장 이홍섭
기획·취재 허명현, 박성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20
전화 031-230-3242
이메일 magazine@ggac.or.kr
홈페이지 www.ggac.or.kr
ISSN 2234-5949
기획·디자인 방형식디자인

<예술과만남>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COVER STORY

이번 호 표지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겸
지휘자인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그의 예술적 탁월
함과 음악적 완벽함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관객에
게 큰 영감을 주며 클래식 음악계에 지울 수 없는
유산을 남겼는데요. 심오하면서 다면적인 감정의
세계, 그 노련한 클래식의 정수를 2024년 경기필
하모닉 레퍼토리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
곡 1번>에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TALK

<예술과만남>을
카카오톡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에 목말라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에 선사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사유의 본질은 본질의 사유다”(Das Wesen des Denkens ist das Denken des Wesens)”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단순한 일상의 공백과 가벼운 삶의 여백은 늘 허기진 인생을 갈증 나게 만든다. 건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사이… 어쩌면 예술은 일상을 꽃피우며 해갈시키는 삶의 소중한 무게추일지 모른다.



여백과 채움

팔로우로 일상에
예술을

인스타그램 예술가
4인

젊은 예술가에게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SNS가 아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작품 전시장이자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어쩌면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다.
덕분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손쉽게 예술을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을까.
인스타그램에서 날고 긴다는 '최신 예술인'을 소개한다.



Greg Goya의
공식적인 첫 작품인
<Kiss stop>



GGAC's Theme 아트 인사이트



Greg Goya가
거리에 설치한 모형 시계 가운데엔
'딱 맞는 순간은 언제인가?'라 쓰여 있고
가장자리엔 숫자 대신 '지금'이라 적혀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스타그램을
들어다보고 있다면
이제 예술인들에게 주목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좋아하는 분야의 예술인을 팔로우한다.
구독료도 없다. '팔로우'란 동작 하나가
가져다줄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거리의 예술가 Greg Goya가
자신의 작품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을
기념으로 공개한 초상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Greg Goya

그레그 고야(Greg Goya)는 이탈리아에서 설치 예술을 전개한다. 그의 작품은 주로 거리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것으로 구성된다. 길거리에 'Kiss Here'이란 낙서를 남기거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앞에 땅따먹기를 그려놓고, 쓰레기통 위에 농구 골대를 설치한 뒤 사람들을 카메라로 지켜보는 식이다.
그렇기에 그의 작품을 완성하는 건 언제나 대중이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Fast Art'라고 지칭하며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업한다. 그의 릴스를 보다 보면 언젠가 길거리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할 날을 상상하게 된다. 기발한 방식을 통해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그의 작품을 감상해 보자.

이토록 귀여운 움직임 Amedeo Capelli

이탈리아 목공예가 아메데오 카펠리(Amedeo Capelli)는 ‘오토마타’ 제작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오토마타’란 기계 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뜻한다. 그는 주로 나무를 소재로 다양한 형태의 인형을 만드는데,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이야기지기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다.

악기를 연주하는 새우, 팬싱하는 생쥐, 두루마리 휴지 위를 달리는 개구리 등 작품 전반에 ‘무해한’ 귀여움이 잔뜩 묻어난다. 스톱모션이나 애니메이션이 연상되기도 한다. 평소 수제 공예품을 좋아한다면 팔로우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길 추천한다.



왼쪽, 두루마리 휴지가 당겨질 때의 힘을 이용한 간단한 개구리 인형, Amedeo Capelli
오른쪽, Amedeo Capelli의 작품 세계 속 자주 등장하는 생쥐 캐릭터

손으로 만드는 초현실 풍경 최아빈

최아빈은 한국의 콜라주 아티스트다. 많은 콜라주 예술가 중에서도 그녀가 특별한 것은 ‘아날로그’ 콜라주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포토샵이 보편화된 요즘, 심지어 휴대폰만으로도 ‘도려내기(누끼)’ 정도는 거뜬한 시대에 그녀는 사진을 일일이 칼로 오리고 테이프로 붙인다.

그래서인지 이 수고로운 과정이 담긴 영상엔 ‘우리에게 포토샵이 있다’는 식의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작업만이 주는 즐거움을 말한다. 초록 보드 위를 사부작사부작 누비는 손길을 따라 하나뿐인 콜라주 풍경이 탄생하는 순간을 지켜보자.



창문과 바닥을 일일이 뚫은 뒤 하늘 사진을 겹치고, 물고기를 기둥 사이에 끼워 넣어 재치 있게 완성한 작품, 최아빈



위, 김예슬 작가는 단순히 공간을 똑같이 묘사하기보단 인상적이었던 요소를 부각해 표현하고 있다.

아래, 김예슬 작가의 피드 속 그림은 언제나 공간 추천을 곁들인 콘텐츠이기에 보는 재미가 더욱 쏠쏠하다.



큐레이터이자 크리에이터 김예슬

김예슬은 카페와 맛집 투어를 즐기며 이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러스트레이터다. 어디서든 드로잉북과 펜 등 도구를 꺼내 들고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기본적으로 가게 방문기가 콘텐츠이기에 멋진 장소 정보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그녀는 3가지 드로잉 북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데, 다년간의 작업이 만들어준 믿음직한 취향 덕에 올라오는 족족 근사한 가게를 하나씩 알게 된다. 그녀의 피드에선 일상을 여행하듯 사는 ‘생활 예술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도 마음먹기에 따라 여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싶다면 그녀의 그림이 도움이 될 것이다.

글 ————— 주제(zooje)

ANTIIEGG 에디터. 일찍이 커머스 에디터로 커리어를 시작해 다채로운 제품이 주는 삶의 풍요를 전하고 있다. 지금은 브랜드 콘텐츠 담당자로 일하며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누구든 쉽게 접근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부터 브랜드, 생활 제품에 이르기까지 알록달록한 큐레이션을 제안하고 있다.

일상의 틈에 예술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일상 속 필히 발생하는 여백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달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제 예술인들에게 주목해 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좋아하는 분야의 예술인을 팔로우한다. 이제 이들은 우리의 휴대전화 화면에 작품을 가져다준다. 구독료도 없다. 피드를 가득 메웠던 가십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예술이 채운다. 과도한 도파민성 정보로 어지럽던 머릿속은 산뜻한 영감과 함께 이내 개운해질 것이다. ‘팔로우란 동작 하나가 가져다줄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현호정 《단명소녀 투쟁기》 연명담의 현대적 재구성과 재해석

GGAC's Theme 포커스



《평양감사 허미수와 단명할 운명의 아이》는 허미수(許眉叟 許穆)의 지시로
버려졌던 단명의 소년이 정승인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 국립중앙박물관

《단명소녀 투쟁기》는 세계절출판사에서 주최하는
박지리문학상 제1회 수상작으로, 작가 현호정은 한국 고전 서사
유형 중 하나인 연명담(延命談)에서 작품을 착안했다고 한다.
연명담은 단명할 운을 타고난 인물이 모종의 방책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이야기인 '연명설화'를 말한다.
연명담으로는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동방삭(東方朔)이 삼천갑자
(三千甲子)를 산 내력》, 《평양감사 허미수와 단명할 운명의 아이》 등이
전해 내려온다.

신화와 환상 세계관에 안주한 연명담

연명담 이야기의 공통점을 추려보면, 한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일찍 죽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지나가는 승려, 맹인, 신선, 도사,
염라대왕 같은 미지의 신비로운 귀인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거
나 그에게 공물을 바쳐 오래 잘 살았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고전 연명담의 주인공은 천편일률적으로 미성년 남성이다. 이
처럼 남자아이의 목숨 늘이기가 서사의 주축인 까닭은 무병장
수의 보편적인 소망과 별도로 가부장제라는 특정 사회 체제에
서 세대 재생산의 욕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를 잇기 위해,
가문을 지속시키기 위해, 특히나 집안의 외아들이라면 미성년
기를 무탈히 넘기고 생존해야 한다. 반면, 당시 여자아이들은
얼마나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은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
기고 살아남았는지는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자
아이들의 연명담을 거의 알지 못한다.

고전 연명담에서 남자아이가 단명하는 이유는 그저 운명이 그
러하니까, 또는 호랑이의 습격을 받아서라 설정됐다. 영유아 사
망률이 높았던 당대의 현실에서 생활 환경과 위생 의식을 근대
적으로 개선해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도모하기보다 개별 가문
의 존속과 장자의 보위에만 자원을 쏟아부음에 따라, 지나가는
승려, 맹인, 도사 등 공적 지성계 바깥 야인의 비의적인 말에 권
위를 부여하고 의존하고 복종하게 된다. 주인공은 운명이든 호
랑이든 자기의 생사를 결정하는 상징적 힘과 대결하며 주체적
으로 저항하는 대신, 신화와 환상의 세계관에 안주하며 인간
의 삶이 그저 초월적 권위자에게 바치는 공물, 치성, 노력의 대
가로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야기의 끝에 이르도록 수동적이다.
사유하지 않는다. 수명은 연장됐지만, 그리하여 어떻게 살 것이
가, 윤리적 질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주요한 서사 창작의 흐름

《단명소녀 투쟁기》는 고전 설화를 현대 소설로 다시 쓰면서
주인공이 자칫 부질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이승의 삶
을 이어간다는 골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본래의 민담에서
체제 순응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요소들은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형식의 차원에서는 스테이지 공략 게임의 진행 방
식이나 비공개 자캐 커뮤니티 활동 등 동시대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창작 기법도 거리낌 없이 응용하
고 혼종한다. 《단명소녀 투쟁기》는 한마디로 구비 전승 설화의
세계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발하는 허구 유희 그리고 제
도적 문자 인쇄 매체로의 소설을 융합한, 현시점에서 주요한
서사 창작의 흐름 안에 있다.

《단명소녀 투쟁기》의 주인공은 미성년 남성이 아니라 열아홉
살 여성 구수정이다. 한국에서 열아홉 살은 여러모로 의미 있
는 연령이다. 학령부터 차질 없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면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일 텐데, 만약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
다면 잔혹한 경쟁 체제에서 중압감을 크게 느낄 것이다. 만 18
세를 넘겼다면 정치적 주체이자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첫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태어난 직후부터
지속됐던 미성년기를 아쉽게 또는 훌거분하게 마무리하고,
두근거리거나 불안한 상태로 불가역적 성년기에 진입하기 직전
이기도 하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의 변태처럼, 전적으로
다른 생애 주기로 이행하기 위한 최후의 관문이자, 새 삶을 예비
하기 직전에 결연한 작별 의식을 치러야 하는 나이이다. 죽음,
망각, 급작스러운 박탈인 양 격렬하게 체험되는 게 당연하다.

《단명소녀 투쟁기》는
한마디로 구비 전승 설화의 세계관,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발하는 허구 유희
그리고 제도적 문자 인쇄 매체로의
소설을 융합한, 현시점에서 주요한
서사 창작의 흐름 안에 있다.

목숨을 연장받거나 단명자로 사라지거나

이처럼 특정 연령에 도달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각 문화권은 통과 의례 또는 입문 의식을 발명한다. 통과 의례는 한 또래 집단으로 하여금 미성년에서 성년으로의 탈피, 애도, 재탄생을 유연하게 체화해주는 상징적 형식이다. 동갑내기 미성년들은 함께 통과 의례를 치르면서 동 세대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적 소속감을 키운다. 기성세대는 성인 사회에 새로 진입한 청년들을 환대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 활동의 각 분야에서 더 큰 자격과 권한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형식을 대학 입시가 대체했다. 대학이나, 아니냐. 연명이나, 단명이나. 모든 미성년 주체는 성년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일구든 동료 시민들 사이에서 차별 없이 환대받고 자긍심을 갖출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 결과에 따라 정상성 세계의 진입자 아니면 낙오자로 갈린다. 능력과 성과의 이데올로기

가 초월적 권력자로서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대학 진학에 성공함으로써 목숨이 연장되거나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명자 취급을 받는다.

대학에 진학했다 한들, 학교가 서울 안인가, 수도권인가, 지방인가, 몇 년제인가, 수학능력시험 커트라인은 몇 점인가 따위, 위계와 차별의 촘촘한 격자망 안에 포획된다. 대학이 보장하는 2~4년의 수명이 다하면, 취업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취업 성공과 실패 여부로 다시 목숨을 연장받거나 단명자로 사라진다. 와중에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에 따라 역시 사회적 수명이 좌지우지된다. 비정규 계약직의 수명은 한 시간에서 10개월 사이의 알량하게도 다양한 단위로 매번 연장과 단명을 거듭한다. 거주 조건도 마찬가지다. 자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명의 운명에 속박되어 있다. 전세 거주자라면 2년마다, 월세 거주자라면 매달, 수명을 연장받거나 단명한다.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전설상의 인물인 동방삭(東方朔) ©중국인물사전

현실과 문학 양자의 문제를 탐색하다

오늘날 한국에서 배우고, 일하고, 터를 잡아 쉬는 인간적 삶의 양상들은 이처럼 치밀한 위계와 차별의 체제 아래 지배되고 있다. 노동과 주거 조건을 결정하는 세력은 그것을 교묘하게 복잡한 시간 단위로 분할하고 교환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생을 관리하고 통치한다. 이런 비참한 세계에서 우리는 동시대인으로서의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는 커녕 타인의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각자의 특수한 조건들 속에 고립되어 근근이 생존을 도모하기 일췌다. 공동의 생을 지속할 힘을 모으기보다는 자기의 하루살이 목숨에만 골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다시 쓰는 연명담이란 단순히 개인이 어떤 초월자의 자의적 은덕으로 장수를 하사받는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정확히 이런 이야기에 저항해야 한다. 생명이란 목숨의 길이를 넘어서 사회적 생의 조건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체제의 통치술 아래 성취와 보상의 원리로 작동하며 정상적이라 규격화된 생애 주기에 얽매이지 않고, 삶과 시간의 다른 관계를 상상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단명소녀 투쟁기》는 민담, 신화, 환상의 표피 아래 이러한 현실과 문학 양자의 문제를 탐색하는 바로 그 이야기이다. ▶



얼마 살지 못할 팔자를 타고난 소년이 복두철성에게 빌어서, 그 덕택으로 오래 살게 됐다는 내용의 설화 《복두철성과 단명소녀》. 신이담(神異譚)에 속하며 《남두철성과 단명소녀》이라고도 한다. 중국 진(晉)나라 때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권1에 관로(管輅)의 이야기로 실려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고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글 윤경희

문학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산문집 《그림자와 새벽》(시간의흐름, 2022)과 《분더카머》(문학과지성사, 2021)를 쓰고, 앤 카슨의 《녹스》(봄날의책, 2022) 및 그림책과 그래픽 노블 여러 권을 번역했다.

*이 글은 현호정 《단명소녀 투쟁기》, 사계절, 2021에 실린 해설을 축약한 것임.



GGAC 레퍼토리 시즌 2024 경기아트센터
《단명소녀 투쟁기》메인 포스터



끝없이 자아낼 노랫가락의 시작 Echo of Gyeonggi <노랫가락>

경기시나위 예술감독 김성진 · 작곡가 우효원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새 레퍼토리 <노랫가락>이 4월 26일 관객과 만난다. 끝없이 자아낼 노랫가락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Echo of Gyeonggi’ 공연을 앞두고, 김성진 경기시나위 예술감독과 우효원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글_편집부 사진_이성원

위대한 유산, 경기민요

4월 26일 관객과 처음 만나는 <노랫가락>은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이 경기도의 유산, 경기민요로 세우는 새 음악 창고다.

“경기도에 자리한 오케스트라인 만큼, 경기도의 정서를 담은 경기민요를 활용해 우리다운 공연 목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 경기민요의 다채로운 감성을 국악관현악과 합창으로 표현하는 <노랫가락>입니다.” 그 보물창고의 주춧돌을 세우는 일은 합창음악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우효원 작곡가가 맡았다.

“<노랫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이는 첫 곡은 우효원 작곡가의 ‘Echo of Gyeonggi’입니다. 우효원 작곡가는 가사에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찾아 곡을 만드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의미 없이 곡을 어렵게 만들지도 않아요. 덕분에 청중이 선율에 쉽게 공감할 수 있죠.”

우효원 작곡가는 작품의 이름부터 경기민요라는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랫가락>이란 흔히 알듯 노래의 곡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 부르는 특정 민요곡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민요이자 모든 노래를 아우르는 이 단어야말로, 경기민요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이 공연을 설명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해서 이름 삼았습니다. 해외에서 공연할 때 경기도의 음악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첫 공연 제목은 ‘Echo of Gyeonggi’라 지었고요.”

<노랫가락>이 벌써부터 예고하는 ‘확장’은 김성진 예술감독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바다.

“우선 경기민요라는 소재가 무척 풍부하니, 어떤 민요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계속 다른 곡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요를 관현악과 합창으로 표현하는 점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입니다. 국내외 관현악단이나 합창단과 협연할 수도 있고, 합창음악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쉬이 공연할 수도 있니까요. 지속해서 변주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끝없이 자아낼 그 <노랫가락>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든든한 자산이 될 테다.

경기민요를 관현악과 합창으로 표현하는 점도 확장성을 염두에 둔 선택입니다. 국내외 관현악단이나 합창단과 협연할 수도 있고, 합창음악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쉬이 공연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속해서 변주가 가능한 거죠.



우효원 작곡가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노랫가락〉 외에도 새로운 위촉곡(작곡가에게 의뢰하는 창작곡)이 연이어 관객을 만나는 올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저다운 음악’으로 그 실력을 충만히 발휘할 한 해다.

새로운 전통, <노랫가락>의 미래

〈노랫가락〉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국악계에도 새길을 제시하는 공연이다.

“김성진 예술감독님께서 씨를 뿌린 창작국악관현악단이 어느덧 굳건히 자리 잡았듯이, 국악관현악과 합창이 함께하는 〈노랫가락〉 시리즈도 경기민요의 매력을 보여주는 새 공연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노랫가락〉은 국악이되,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르입니다. 누군가는 전통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전통 음악 또한 100년 전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각 시대의 전통은 각기 다른 법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국악관현악단과 합창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도입할 때는 창의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토록 새로운 <노랫가락>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김성진 예술감독이 말을 이었다.

“새로운 장르인 만큼 우선은 새로운 곡이 대거 필요합니다. 익숙한 민요는 낯설게, 낯선 민요는 친근하게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곡 작업을 지속해 나가야지요. 더불어 앞으로는 무대 연출을 가미해 더욱 극적인 공연도 선보이고 싶습니다. 규모를 키워 극음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그리고 국악계의 더욱 풍성한 내일을 노래하는 <노랫가락>이 지금 시작한다. ▶

함께 만드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저다운 음악

〈노랫가락〉을 소개하는 첫 공연 ‘Echo of Gyeonggi’는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의 남다른 애정 속에 탄생했다. 우효원 작곡가는 우선, 김성진 예술감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언급했다.

“김성진 예술감독님과 평소에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 상호 작용이 이번 곡을 만들 때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요. 단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단원의 참여는 ‘Echo of Gyeonggi’를 완성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민요는 악보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해 온 음악이고, 지역 혹은 가창자가 사사한 스승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차용해야 할지 작곡가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고민을 토로 했더니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민요팀이 한 곡 한 곡 민요를 녹음해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각 단원이 체화한 민요의 형태와 음역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죠.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에서, 단원들의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경기

시나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앞으로의 작업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김성진 감독 또한 단원들을 높이 샀다. “열정은 물론 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해외에서도 활약할 만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나라 어디에도 없는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감독이 말하는 ‘우리만의 음악’은 곧 국악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을 함께하는 수원시립합창단이 우리 단원의 몇 가지 조언만으로 급세 민요다운 가창법을 습득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 음악은 그 나라 사람이 가장 잘하는 법’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국악인이 해외로 적극 진출해야 하는 이유이자, <노랫가락>처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악을 활발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악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이니까요.”

〈노랫가락〉 외에도 새로운 위촉곡(작곡가에게 의뢰하는 창작곡)이 연이어 관객을 만나는 올해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저다운 음악’으로 그 실력을 충만히 발휘할 한 해다.





현악 4중주가 전하는 동유럽 음악의 매력 <고전적 음악, 오후 I>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

세계에서 놀라운 커리어를 쌓아온 현악 4중주단 콰르텟이 4월 6일,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공연 <고전적 음악>에서 동유럽 대표 음악가들의 곡을 소개한다. 전채안(제1 바이올린), 박은중(제2바이올린), 장운선(비올라), 박성현(첼로) 젊은 연주자가 현악 4중주로 전하는 동유럽 음악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자.

글_편집부 사진제공_목프로덕션

아레테 콰르텟이 전하는 현악 4중주의 매력

현악 4중주는 현악기 4대라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음악의 4성부, 즉 베이스-테너-알토-소프라노를 구현하기에 작곡이 가장 까다로운 장르로 꼽힌다. 그 때문에 작곡가의 실력을 드러내는 시금석으로 인식됐고, 여러 거장이 현악 4중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아레테 콰르텟의 전채안 바이올리스트는 바로 그 과정에서 현악 4중주가 작곡가의 일지 같은 존재가 됐다고 설명한다.

“현악 4중주의 매력은 작곡가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성현 첼리스트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베토벤은 <현악 4중주 No. 132>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심정을 담았고, <현악 4중주 No. 131>을 가장 자부하는 곡으로 꼽았죠. 그런가 하면 이번 공연에서 연주하는 알반 베르크의 <현악 4중주를 위한 서정 모음곡>은 작곡가 자신의 불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유족들이 세상에 공개하기를 오랜 시간 꺼린 바 있습니다”



따로, 그리고 함께

현악 4중주는 연주자에게도 녹록지 않은 장르다. 각각이 맡은 성부를 홀로 연주하는 책임감을 견디면서 조화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콰르텟을 연주할 때의 부담감을 “의지할 데가 없는” 고독이라 표현한 박은중 바이올리니스트는 동시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냈을 때 무척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덧 결성 5년 차를 맞이한 아레테 콰르텟은 이제 ‘따로, 그리고 함께’라는 그 아슬아슬한 간극 위에서 균형 잡는 방법에 숙달한 모습이었다. 장윤선 비올리스트는 콰르텟 또한 단체 생활이라 말한다.

“일상에서도, 연주 중에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를 계속 생각해요. 연주 중이라면 멜로디를 맡은 주자가 더 편하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주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 일 없이 대화하듯 연주할지 고민합니다.”

전채안 바이올리스트도 말을 더했다. “서로 의견을 훨씬 효율적으로 나누게 됐어요. 가령 예전에는 리허설할 때 불필요한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의 눈빛만 봐도 필요한 것을 알다 보니 더 질 높은 대화가 가능해졌죠. 항상 이 긴장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야말로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관성

에 젖어 서로 무뎠던 채 연주한다면 아마데우스 콰르텟처럼 40년, 아니 그 이상을 함께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와 체코로 떠나는 이 봄의 음악 여행

무르익은 함으로 아레테 콰르텟이 선보일 이번 공연의 주제는 ‘동유럽의 봄’이다. 동유럽이라는 너른 지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레오시 야나체크(L. Janáček)와 알반 베르크(A. Berg)를 골랐다.

두 작곡가의 고향은 각각 오스트리아와 체코로, 이 두 나라는 아레테 콰르텟에게도 각별한 나라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최고해석상을 수상했고, 체코에서는 2021년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국내 실내악단 최초로 현악 사중주 부문 1위 수상 및 5개 특별상을 석권했기 때문이다.

박성현 첼리스트는 두 작곡가의 고향과 그들의 작품이 신기하게도 똑 닮았다고 말한다. “프라하의 화려하면서도 투박하고, 때로는 동양적인 모습이 레오시 야나체크와 겹쳐요. 그런가 하면 호화스러우면서도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오스트리아는 알반 베르크의 음악과 닮았죠. 작곡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이미지도 고려하며 들으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네요. 저희 음악을 듣는 관객이 여행하는 기분을 느낀다면 좋겠어요.”



무르익은 함으로
아레테 콰르텟이 선보일
이번 공연의 주제는
‘동유럽의 봄’이다.
동유럽이라는 너른 지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는
레오시 야나체크와
알반 베르크를 골랐다.

레오시 야나체크 <현악 4중주 No.1 크로이처 소나타>

레오시 야나체크가 체코로 초대하는 곡은 <현악 4중주 No.1 크로이처 소나타>다. 톨스토이가 쓴 동명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부인의 정숙을 의심해 살해하는 남편을 화자로 삼았던 소설 내용을 전복해 부인의 입장에 집중했다. 특히 야나체크는 사람의 말투며 목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곡을 쓰던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전채안 바이올리스트는 그래서 “연주 시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연주로 더 잘 표현할지 고민한다”며 “체코에 갔을 때 체코어가 야나체크 곡의 음형과 비슷해서 놀랐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현악 4중주 No.1 크로이처 소나타>는 비교적 튀지 않는 악기로 알려진 비올라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베토벤 등 고전주의 음악 작곡가는 제1 바이올린에 집중하는 데 반해, 야나체크 등 동시대 동유럽 작곡가의 작품에서는 그외 다른 악기도 돋보여요. 이 곡에서는 특히 비올라의 역할이 커서, 곡이 한층 화려하죠.”

전채안 바이올리스트가 꼽은 하이라이트 악장 또한 비올라가 활약하는 4악장이다. “비올라가 총을 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주목해 주세요. 무척 멋있답니다.”

알반 베르크 <현악 4중주를 위한 서정 모음곡>

알반 베르크가 속한 신빈악파(新Wien樂派)의 작품은 잘 알려진 고전 시대나 낭만 시대 곡과는 상이한 상황 묘사와 기법을 선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박성현 첼리스트는 <현악 4중주를 위한 서정 모음곡>을 듣는 관객에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할대로 현을 치는가 하면, 줄을 손가락으로 뜯듯이 튕기는 등 다양한 주법이 나오거든요.”

표현 기법이 다양하기에 <현악 4중주를 위한 서정 모음곡>은 연주 난도가 높은 곡으로 꼽힌다. 하지만 박은중 바이올리스트는 그럼에도 “알반 베르크는 무척 친절한 작곡가”라고 말했다. “연주자가 필요한 정보를 악보에 모두 표시해 주었거든요. 관객에게도 이 곡이 친절하다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연주해 보겠습니다.”

<현악 4중주를 위한 서정 모음곡>에서 대중에게 인기 있는 부분은 빠르고 화려한 5악장이다. 하지만, 전채안 바이올리스트는 4악장 또한 하이라이트로 꼽았다. “빠르고 시끄럽게 질주해 온 곡이 조용해지는 때 끝내기 싫은 사랑을 힘들게 끝내며 죽어가는 베르크가 느껴져요.”

더 많은 관객과 함께 <고전적 음악>

현악 4중주로 동유럽 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고전적 음악, 오후 1>는 공연 시간을 주말 오후로 고정해 더욱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박성현 첼리스트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관객이 콰르텟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객분들에게 좋은 곡을 많이 전하고 싶고, 노부스 콰르텟 등 선배 연주자가 그랬듯 저희 또한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관심에 보답하는 연주를 선보일 자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란 ‘참된 목적’,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의 실현’과 관계된 최상의 우수함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 뜻에 지지 않는 ‘아레테 콰르텟’의 아레테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

아레테 콰르텟 제3회 정기연주회 <수만의 현악 4중주> 현장 사진. 왼쪽부터 제1바이올린 전채안, 제2바이올린 박은중, 비올라 장윤선, 첼로 박성현 © 목프로덕션



휴(休), 여백과 몰입 그리고 채움의 공간

산책길에서 독일의 문호 괴테와 마주친다면, 묻고 싶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껴 절망한 노학자(老學者)
파우스트는 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냐고. 인류사의
장엄한 드라마를 창조한 문호에게 실례의 질문일까?
호수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되새김한 우문현답이 건릉의
상수리나무 숲길로 안내한다.

GGAC's Theme
네다보기



괴테가 살아 숨 쉬는 여백서원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의 집, 여백재

‘여백서원(如白書院)’은 책의 집이다. 또 은둔과 몰입의 공간이자 개방과 공유, 나눔의
현장이다. 학문과 예술 교류를 통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문화의 틈을 채우고
메꾸는 어우러짐을 지향한다. 여백서원의 ‘여백(如白)’은 ‘흰빛과 같다’는 뜻으로
‘여백재’란 ‘맑은 사람들을 위한 책의 집’을 말한다. 여백서원의 주인장이자
책지기는 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였던 전영애 원장이다.
2014년 사재를 털어 이곳에 한옥채 몇 동을 세우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장서들로 서원의 안쪽을 짙게 채웠다. 빼곡한 장서는 크게 세 계열로, 전 원장의
어머니 필사본과 아버지의 문집 그리고 독일 문학 서적이다. 이외에도 전 원장이
시(詩)의 스승으로 모시는 동독 출신 시인 라이너 쿤체의 책, 학문의 스승으로
모시는 헨드릭 비루스 교수의 책, 자신이 쓰고 번역한 책, 교양수업 ‘독일 명작의
이해’를 수강한 제자들이 종강 때 각자 한 권씩 만든 책, 서원에 다녀간 사람들의
책까지 소중하게 간직돼 있다. 사실상 사람보다 책이 우선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외의 장소도 있다. 본관에서 시정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의 왼쪽은 여주에
왕릉이 있는 세종의 길, 오른쪽은 독일 낭만주의의 상징인 푸른 꽃길이다. 산 위에
철골 구조물로 지은 3층짜리 전망대도 압권이다.

- Tip**
- 주 소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정길 255-31
 - 시 간 매월 마지막 토요일
 - 문 의 070-4120-8055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

자연과 함께하는 광고호수공원 국내 최대의 도심 속 호수공원

광고호수공원은 광고산과 원천저수지 및 신대저수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아름다운 수변공간이다. 특히 어반레비와 함께 6개의 테마를 가진
국내 최대의 도심 속 호수공원이다. 둠뽕(웅덩이의 전라·충청도 방언)으로
어우러져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거울못’,
‘신비한 물너미’, ‘물보석 분수’ 등 9개의 바닥분수 시설과
총 6.5km의 순환보행로 그리고 도심 속 힐링 공간인
가족캠핑장(캐러반 7면, 오토캠핑 26면)이 과연 국내
최대의 도심 속 호수공원이란 타이틀을 잘 설명해준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다목적 체험장, 야외공연장,
스포츠클라이밍장, 수변 위 5개의 원형데크와
아치형의 정다운 다리가 있는 조용한 물숲, 행복한
꽃섬, 습지와 버드나무가 어우러진 먼 섬 숲 등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꽃, 부들, 꽃창포 등이
연출하는 수면 위 원형 산책로를 걷노라면 이곳이 지상낙원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환경도시 수원을 표방해 만든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는 호수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견 놀이터도 솔깃하다. 총면적 3,524㎡에 소형견,
중·대형견, 격리공간 등이 잘 구비되어 있다. 특히 반려견 놀이시설인
어질리티도 4개소나 갖췄다. 월요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반려견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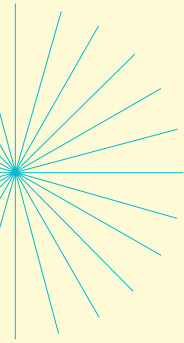
- Tip**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광고호수공원로 102
 - 운 영 06~22시(연중무휴)
 - 문 의 070-8800-2460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

시간의 여백을 채우는 여정, 용건릉 아버지를 향한 애절한 효심

조선시대 왕 중 성군으로 손꼽히는 정조는 정치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이자 동시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각별한 효심을 가진 아들이었다. 용건릉은 사도세자가 묻힌 용릉과 정조가 영면한 건릉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정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곳 화성으로 옮긴 후 원호를 영우원에서 현릉원으로 바꾸고 능에 못지않게 주변을 조성했다. 이후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현릉원 동쪽에 건릉을 조성했고, 후에 고종에 의해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존되면서 명칭을 용릉으로 올려 현재의 용건릉에 이르게 됐다.

살아서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부자의 정을 나누기라도 하듯 나란히 영면한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의 왕릉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힌다. 정조가 가룩한 효심으로 정성을 다해 조성한 용건릉은 예법을 지켜 최대한 아름답고 섬세하게 꾸며 미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이다.

인상적인 것은 뒤주에 갇혀 마지막을 보낸 아버지를 배려한 마음의 표현이었는지 다른 왕릉과 달리 정자각이 능을 가리지 않게 배치됐다는 점이다. 유난히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용릉은 탁 트인 풍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위치라 사후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아들의 마음이 전해진다.



Tip

- 주 소 경기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
- 운 영 18:00 종료
- 문 의 031-222-0142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프리뷰, 하나

경기시나위 Weekend Concert
<오후 4시 : 다시, 청춘>
다채로운 테마 우리 음악 알리는 주말 콘서트

30

프리뷰, 둘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리 교향곡 1번>
말리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

32

프리뷰, 셋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회연(京畿會宴)>
천년 경기를 춤으로 기리다

34

리뷰, 하나

색다른 재미와 감동 전할 창작 희곡
그 매력의 발견
입체낭독극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

36

리뷰, 둘

끈질기게 파고드는 음악의 본질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
<베토벤 교향곡 3번>



STAGE

다채로운 테마 우리 음악 알리는 주말 콘서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ON STAGE
프리뷰 하나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 다니엘 린데만의 해설과 함께하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eekend Concert <오후 4시>가 주말 오후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펼쳐진다. <오후 4시>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관객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현악, 민요, 사물놀이, 전통음악, 무용 등의 친숙하고 쉬운 음악을 제공하는 주말 콘서트다. 각기 다른 3개의 테마로 3월 '봄', 5월 '효', 7월 '전통'으로 관객과 만난다.

봄의 길목에서 <오후 4시 : 지금,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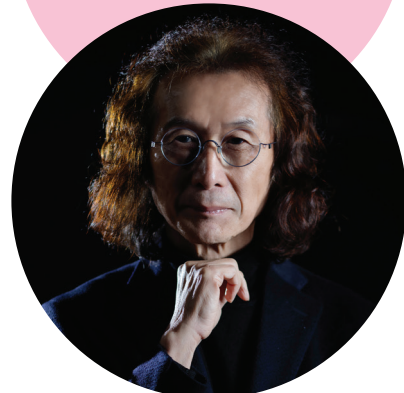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시즌 2024 Weekend Concert <오후 4시>는 국악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걷는 김성진 경기시나위오

케스트라 신임 예술감독의 지휘와 JTBC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린데만(Daniel Lindemann)의 친절한 해설로 진행된다. 다니엘 린데만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변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그트머리, 첫 번째 공연 <오후 4시 : 지금, 봄>을 선보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주말 콘서트는 국악관현악과 무용, 국악으로 풀어낸 교향곡, 가야금협연 '춘설', 양금협연 '푸른 숨' 등을 선보이며 봄의 길목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전한 바 있다. 양금협주곡 '푸른 숨'은 '새야 새야 파랑새'를 모티브로 동학농민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작품. 항쟁에 나선 이들의 고결한 숨결이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담은 곡으로 작곡가 장석진의 위촉초연곡이었다.



다니엘 린데만 진행자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가정의 달 5월

<오후 4시 : 다시, 청춘>

두 번째 공연은 <오후 4시 : 다시, 청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를 주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민요와

사물'을 중심으로 한 국악관현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대를 풍미한 대중가요 '봄날은 간다'로 시작을 알린다. 이 곡은 6.25 전쟁(한국전쟁) 직후 힘든 국민의 내면 정서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공감을 받아 호응이 많았던 노래.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관현악 편곡으로 들려준다.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을 담은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성악양상블 소리봄의 노래 '회심곡'도 심금을 울리긴 마찬가지. 이어 맑고 경쾌한 소리가 많은 경기민요 메들리 '도라지타령·노들강변·양류가·는실타령'과 제주도의 특색이 담긴 제주민요 메들리 '서우제소리·용천검녀영·나영·신아외기소리'가 우리네 삶과 지역적 특징을 담아낸다. 드렁갱이, 발빠드래, 굿거리, 자진모리, 푸너리 등 한국 전통 장단을 활용한 사물놀이 협주곡은 작곡가 이고운의 위촉초연곡이다.

세 번째 공연인 <오후 4시 : 전통, 찬란한>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예술자산인 '전통'을 테마로 궁중음악, 풍류음악, 민속악, 경기잡가,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 다채로운 우리 전통예술을 맛볼 수 있는 무대다. 공연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전통문화예술의 가치를 쉬운 해설로 풀어내며,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을 선사한다.

열린 공간, 문턱 낮은 공연장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Weekend Concert <오후 4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바쁘고 지친 일상에 휴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관계자는 "Weekend Concert <오후 4시>가 경기도민에게 열린 공간, 문턱 낮은 공연장을 만들고 경기도민의 삶에 휴식을 전하는 여유롭고 편안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eekend Concert <오후 4시>

<오후 4시 : 다시, 청춘>

일시 5.25(토) 16:00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031-289-6471~5
곡명 관현악 '봄날은 간다'
회심곡
경기민요(도라지타령·노들강변·양류가·는실타령)
제주민요(서우제소리·용천검녀영·나영·신아외기소리)
사물놀이 협주곡

<오후 4시 : 전통, 찬란한>

일시 7.27(토) 16:00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문의 031-289-6471~5
곡명 궁중음악 '대취타'
풍류음악 '천년만세'
아쟁산조
경기잡가 '천유가'
한국무용 '포구락'
사물놀이



말러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

일시 5.23(목) 19:30, 5.24(금) 19:3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롯데콘서트홀

문의 031-230-3324



ON STAGE
프리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5월 23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과 5월 2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선욱 예술감독의 지휘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연주한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의 실현

경기필하모닉 예술감독 김선욱 지휘자가 <말러 교향곡 1번>을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김선욱은 어릴 때 처음 말러라는 작곡가의 곡을 접한 게 교향곡 1번이었다고. 말러 교향곡 1번으로 말러의 음악에 입문한 셈이다.

“말러의 음악은 묵혀뒀던 감정을 한 번에 확 뚫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금욕주의에 가깝다면 말러의 음악은 쾌락, 인간의 양면성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축약해 놓았다고 할까요.”

김선욱은 “말러의 음악은 오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며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음악이다. 물론 1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구성적인 측면에서 베토벤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말러는 자연의 소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말러의 음악을 좋아했다”고 술회했다.

말러의 실내악 곡은 연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말러의 교향곡은 지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김선욱의 전언이다. 그가 말러 음악의 첫 입문이자 관문인 교향곡 1번을 취임 첫해에 꼭 연주하고 싶은 이유다. 이미 2000년대 초 오케스트라 총보를 사둔 그는 “오케스트라 총보를 피아노로 치면서 언젠가는 지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사놓은 총보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말러는 29살에 작곡한 1번 교향곡은 다른 말러 교향곡들의 가장 기본이자 토대가 되는 작품이다. 그의 다른 교향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곡이라 ‘말러 입문용’으로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 말러의 교향곡 중에 1번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푼다”는 김선욱은 마스터즈 시리즈 I에서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어려운 3번을 연주했고, 마스터즈 시리즈 II에서도 말러 교향곡 중 가장 어려운 1번을 골랐다. 김선욱은 “<말러 교향곡 1번>은 제가 어릴 때 지휘자를 꿈꾸며 스코어를 보고 피아노로 치던 곡”이라며 “오랫동안 바라왔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자 동시에 말러의 음악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다”고 지휘에 앞선 심경을 밝혔다.



바이올린 마크 부쉬코프



지휘 김선욱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한편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차이콥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준우승한 마크 부쉬코프(Marc Bouchkov)가 협연한다. 흠잡을 데 없는 섬세한 연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혈통의 벨기에 바이올리니스트인 마크 부쉬코프는 마리스 안손스가 지휘하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이 지휘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프 에센바흐가 지휘하는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렌조 비오티가 지휘하는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공연한 바 있다.

이번에 연주하는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던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현악기의 고음 처리, 팀파니의 잣은 사용, 격렬한 음향 등 시벨리우스 음악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회연(京畿會宴)>

천년 경기를 춤으로 기린다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첫 번째 공연인 <경기회연(京畿會宴)>은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 취임 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경기도와 경기도무용단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첫 작품이다. 전통 콘텐츠의 가능성과 문화예술의 창작 그리고 작품성이 기대되는 말 그대로 ‘회연(會宴)’ 그 자체다.

품격 있는
공감으로
관객과 조우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회연(京畿會宴)>이 오는 4월 19~20일 이틀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경기 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도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자 기획된 <경기회연>은 ‘천년 경기를 춤으로 기린다’의 첫 단초(端初)가 되는 작품이다. 새롭게 취임한 김경숙 예술감독이 전하는 <경기회연>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해 품격 있고 유장한 무대 미학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무용단의 예술 공공성을 널리 알리는 마중물로서 새로운 비약과 경기도의 번영을 염원하는 첫 공연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미니멀한 정제의 미학이 살아있는 한국적 미의식을 안무에 관통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김경숙 예술감독은 이번 <경기회연>에서도 정제된 표현과 흥의 경계를 조화롭게 넘나들며 품격 있는 공감으로 관객과 조우한다는 계획이다. 안무 역시 음유의 춤사위를 반동하는 탄력으로 양강의 역동성을 살려 남녀군무의 대대적인 에너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경기 문화유산으로
관객과
소통하다

한편 <경기회연>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새로운 관객 소통의 의미를 구축한다. 전통음악과 전통춤 형식 분석 및 그 해석을 통해 현대적 무대예술로서의 미학을 담아낸다.

또한 전통춤의 전형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움직임의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경기회연>은 천년 경기의 찬란한 미래를 기원하는 춤의 축제로 전체 3막으로 구성된다. 1막 ‘경기 천년에 대한 봉행’, 2막 ‘천년의 상서로운 기운으로 길을 열고..’, 3막 ‘경기회연 - 춤과 소리로 베푸는 화합의 잔치’로 총 70분의 러닝타임으로 펼쳐진다. 자연에 대한 순응과 도전을 통해 역사를 일궈 온 경기도민의 상생의 심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천년 역사 속 사람들의 노고를 어루만진다. 전통적인 세시의례와 놀이의 성격을 반영하며 따뜻한 한국적 정감이 살아있는 춤의 향연이 될 <경기회연>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또는 그 잔치의 뜻을 품은 진정한 의미로의 ‘회연’이 될 전망이다. ▶



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회연(京畿會宴)>
일시 4.19(금) 19:30, 4.20(토) 16:00
장소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31-230-3313





ON STAGE 리뷰 하나

우체국에 김영희씨

색다른 재미와 감동 전할 창작 희곡 그 매력의 발견

경기도극단 <창작희곡의 발견>

경기도를
배경으로 한
입체낭독극

지난해 창작희곡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차지한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 두 작품이 입체낭독극으로 관객들을 먼저 만났다. 입체낭독극은 대본만 읽는 낭독극과는 달리 간략한 무대와 소품들이 있고,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동시에 대본을 읽는다. 어느 정도 갖춰진 입체낭독극을 보면 극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또는 연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극을 그려내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창작희곡공모전에서 수상한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는 앞선 수상작과는 달리 경기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 때문에 작품에서 지역은 단순히 극이 진행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는 동시에 이곳이 왜 극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지도 납득 가야 했다.

<부인의 시대>
끝까지 긴장감 놓을
수 없는 촘촘한 전개

이미경 작가의 <부인의 시대>는 안산시의 재건축을 앞둔 한 오래된 건물 내 피부관리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생각해 보면 목욕탕이나 피부관리실, 미용실과 같은 곳은 수많은 이야기가 노골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러한 장소적 특징을 가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부인'들의 이야기 속에 지역과 사회의 이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중성과 이기심 등을 함께 잘 버무렸다. 외국인노동자, 조선족을 포함한 피부관리실 직원들 중 그 누구도 사연 없는 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아파트 값이 사람보다 중요해진 험난한 세상에 의지할 곳조차 없었다. 물고 물어뜯기는 이들에게 정글과도 같은 현실 세계는 양푼이 속 마구 섞인 비빔밥처럼 혼란스럽지만, 온갖 갈등의 끝에 그 비빔밥을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며 '네 박자'를 부르는 모습에서 어쩐지 몽클한 감정이 느껴진다. 결국 현실에 내몰린 인간이 갈 수 있는 그곳은 댕친 포크레인 사이로 하나둘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어떤 미지의 세상이다. 작품은 그들이 꿈꾸는 그 세상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며 그곳은 과연 어디일지 상상하게 한다. 소재 자체도 그렇지만, 인물마다 가진 사연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아 자칫 극이 버거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작품은 '부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 속에 유머를 잃지 않으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촘촘한 전개와 텍스트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젊은 작가가
보여주는
위트와 재미

박강록 작가의 <우체국에 김영희씨>는 당차지만 따듯한 인물 김영희가 직원 몇 없는 연천의 우체국으로 입사하고, 겉으로는 과묵하지만 속으로는 과묵하지 않은 우체국 직원이자 선배인 상식의 관찰대상이 된다.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의 작은 마을, 동네 사람이 찾는 우체국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그리고 별일이 아니지만 별일처럼 커지는 사건들 '김영희'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변하는 것은 많았다. 상식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이크와 일기장은 이러한 일들을 엮어내며 이야기를 끌어가고, 그 속에서 인물들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된다. 젊은 작가가 보여주는 위트와 재미적 요소들이 눈길을 끄는 이극은 사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연천에 있는 우체국이 가지는 특수성은 단조로웠고, 김영희를 포함한 인물들의 관계성과 서사가 좀 더 유기적이고 탄탄했더라면 어땠을까란. 하지만 배우들이 극의 장면들을 재치 있게 표현해내는 모습과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대사와 극의 호흡들이 강점이었던 만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따듯한 극으로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두 작품,
경기도극단
투어 공연도 계획

입체낭독극이 진행된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다. 무엇보다 이를 보는 관객들은 물론 연기를 하는 배우들에게서도 '재미있다'는 반응이 나와 기대감을 높였다. 두 개의 극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지만, 객석의 집중력과 몰입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두 극이 보여주는 각각의 세계가 보는 이들에게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인의 시대>와 <우체국에 김영희씨> 모두 김광보 경기도극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더 높은 완성도의 극으로 만들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될 두 극은 경기도극단에서 투어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또 두 편의 연극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본다. 이것이 바로 창작 희곡이 주는 기쁨이자 연극의 매력임을 느끼며. ◀

글 구민주
경인일보 문화체육부 기자. 이 세상 모든 덕후를 존경한다. 좋아하지만 하고 싶은 문화의
구석구석을 탐구해 가는 중이다.



끈질기게 파고드는 음악의 본질

ON STAGE
리뷰

지난 1월, 첫 취임 연주회 이후 경기필과 두 번째 무대에 오른 예술감독 김선욱. 객석 점유율을 보며 그의 부임으로 인해 경기필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1막 전주곡과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이번 연주회에서 선곡한 그의 의도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거쳐야만 하는 과정을 차근히 밝아나가겠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는 듯했다.

협연, 오케스트라의 일부가 되다

협연자 피아니스트 바딤 콜로덴코는 피아노를 장악하는 외형과는 달리 세밀한 표현을 하는 연주자였다.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작곡가 스스로가 ‘협주적 교향곡’이라고 했던 것처럼 솔리스트의 독보적인 기량보다는 오케스트라와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콜로덴코의 표현은 이 협주곡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구현했다. 특히 첼로 수석이 피아노 독주 위에서 솔로 연주를 펼칠 때 콜로덴코는 첼리스트를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솔리스트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서도 그는 섬세하게 음색을 만들고, 미세한 다이내믹 변화도 구현하며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흐름 속에서도 반짝이는 피아노의 특별함을 놓치지 않았다.

의미를 찾아 나서기까지의 여정

피아니스트로서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선욱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섬세하게 조율해 나갔다.

이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1막 전주곡에서 진가를 발휘했는데, 김선욱은 길게 이어지는 선율 속에서 음향의 변화를 끈질기게 이끌었고, 악단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품이 담고 있는 신비한 이미지를 연출해 냈다.

이 날의 메인 레퍼토리인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이 작곡가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거대하다. 교향곡 역사 전체로 봤을 때도 영웅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작곡가 자신도 ‘대 교향곡’이라고 칭하며 길이와 형식에 오케스트라가 무게감을 가지는 교향곡 시대의 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김선욱은 악보를 통째로 암보해 보면대를 치우고 오케스트라와 더 긴밀히 소통하며 이 작품을 제대로 들려주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그는 단원들과의 눈 맞춤과 더불어 정확한 제스처로 각 파트들에게 미션을 전달했다.

그렇다면 미션을 받은 단원들은 어땠을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연주하게 만드는 지휘란 무엇인가’이다. 압 판 츠베덴이 이야기했듯 경기필은 잠재력을 가진 오케스트라이고, 이를 끌어내는 건 지휘자의 몫이다. 단원이 가진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휘자가 원하는 음악을 함께 구현하고 싶은 의지를 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지휘자의 사인을 표현하기 위한 집중력이 객석까지 전달될 정도로 연주는 성공적이었다.



김선욱 마에스트로

자유로운 베토벤을 연주하다

음악적으로는 1악장에서 주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풀어나가고 전개해 나가는 구조적인 접근 그리고 주제를 만드는 리듬과 더불어 아티큘레이션(Articulation·각 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연주하는 것)의 표현은 청중들이 충분히 음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다. 2악장에서 김선욱은 4분의 2박자이지만 이를 네 박자로 지휘하며 세부적으로 음악을 다듬었는데, 느린 악장에서의 디테일한 표현을 꼼꼼히 살리려는 의도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의 해석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지휘자, 연주자들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지휘자 김선욱의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은 피아니스트로서 김선욱의 시그니처 레퍼토리인 베토벤 소나타 연주 중 초창기의 그를 떠올리게 했다. 악보에 쓰여진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곱씹고 담아냈던 그의 연주 그대로 오케스트라에도 담아냈다. 그러나 이후 김선욱은 악보에 자신의 해석을 더하고, 연주라는 순간의 예술을 받아들여 무대 위에서 감흥을 즉흥적으로 음악에 담아내며 자유로운 베토벤을 연주했다.

그이기에 이날의 <영웅>은 훗날 경기필과 김선욱의 베토벤을 기대하게 하는 발판이었다. 악보에 적혀있는 음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밟아 나가는 연주였다. ◀

글

정소연

음악학을 전공하고 월간 <스트라드>에서 오랜 시간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악계를 이루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며 글을 쓰고, 이를 역어내고 있다.



40

예술이 만난 인문학
비움과 채움의 예술

44

이달의 책과 음반
고맙고 따스한
예술의 어깨동무

46

컬처로드
일상의 여백을 채우고 메우는 예술
알테·노이에·모데르네, 뮌헨의 박물관 지구

50

예술 알고리즘
알고리즘과 개인을 벗어난
생성형 인공지능이 던지는 도전
AI가 내놓은 예술작품은 창작물인가?

54

#공감태그
#독자참여 #SNS공연리뷰



CULTURE ART & Z

비움과 채움의 예술

최근 디지털 디톡스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몸안의 독소를 빼내듯이 SNS나 숏폼, 게임을 하며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디톡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디톡스보다 공간에서의 디톡스가 더 시급하기도 하다. 인간은 왜 공간을 채우려고만 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빈 공간도, 여백도 남겨둘 여지를 주지 않는가.

여백을 추앙하던 우리 민족

지금이야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여백을 추앙하던 민족이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림들이 이 사실을 증명한다. 추사 김정희의 <불기심란도>에서도, 삼절로 불렸던 이정익 <목죽도>에서도, 오만 원권에 등장하는 신사임당의 <목포도도> 그림에서 우리는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서양화의 경우 화폭을 가득 채우며 그림을 그리지만 동양화는 여백을 일부러 활용한다. 이것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라 붓질을 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유기적으로 혹은 조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상에서 받은 느낌을 간결히 표현하고, 그 대상을 둘러싼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할 여유 그리고 그 생각들이 확장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넓어진 세상에서 오롯이 홀로 남은 대상은 우리에게 강한 임팩트로 다가온다. 큰 무대 위에서 홀로 핀조명을 받은 배우가 그러하듯이, 그리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다.

아무것도 그려 넣지 않은 달향아리 역시 조용한 울림이 있다. 도자기에 음각, 양각으로 새겨진 현란한 무늬들이 없어도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빛이 난다. 대칭을 맞추지 않은 달향아리의 둥근 모양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욕심들이 부질없게 느껴진다. 완벽하려는 욕심,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우리는 왜 이런 욕심들을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할까? 달향아리는 우리에게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해 준다. 비워야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



신사임당, 목포도도, 비단에 먹, 31.5x21.7cm © 간송미술관

ART N CULTURE 예술이 만난 인문학

비우고 채우는 것은 방향성일 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이든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채운다는 것은 나의 취향을
큐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이다.



백자 달향아리(보물).
높이 41.0cm, 입지름 20.0cm, 바닥지름 16.0cm, 몸통지름 40.0cm
© 국립중앙박물관

비움은 맛고, 채움은 틀리다?

서양에서의 비움은 종교적 체험에 더 가깝다. 피렌체 산 마르코 수도원 2층에는 수도사들이 기거하던 첼라라 불리는 방들이 있는데, 성인 한 사람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아담한 창문 하나밖에 없는 매우 폐쇄적인 이 공간에 수도사이자 화가였던 프라 안젤리코는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프레스코 벽화를 그려 넣었다. 수도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아무런 장식도 없는 금욕적인 공간에 걸린 작은 그림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은 주옥같은 성경 말씀보다 강력하게,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로 둘러싸인 예배당보다 진솔한 울림으로 수도사들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그림의 기적은 모든 것을 비워낸 공간이어서 가능하다.

수도사들만큼 은둔의 삶을 살았던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모란디는 단정하다 못해 건조하고 무심한 화법으로 병이나 그릇을 그려낸다. ‘내 살림살이는 이것뿐이오...’ 하는 수준의 단출하게 연출된 그의 작품은 담백함 그 자체이다. 그의 병들은 비어있고, 병들이 놓인 배경은 동양화와 같은 여백의 미로 비움의 가치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런 비움의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중요한 신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욕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비움이란 이상적인 가치일뿐 실제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채움에 대한 죄책감만 겐스레 늘어나게 됐다.

김정희, 불기선란도, 1830년대 후반, 종이에 수묵, 22.8x85.0cm © Architect shlee



마음을 비워낸 선조들의 고심과 욕망

클러터코어(cluttercore)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공간을 잡동사니로 어수선하게 꾸미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클러터코어는 아무렇게나 무심하게 놓인 것 같지만, 자신의 콘셉트에 맞춰,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오브제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핵심은 콘셉트이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 기획을 하듯 나름의 콘셉트를 가지고 채워 넣는 것이다. 무작정 채우고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우느냐에 방점이 있다.

여백의 미를 실천하던 옛 선조들도 채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책가도>는 8폭이나 10폭의 병풍에 책과 여러 기물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는 책꽂이를 그린 그림으로 채움의 미학을 보여준다. 책은 기본이고 화병, 문방구, 중국산 도자기, 과일 등이 담긴 그릇 등 온갖 귀한 잡동사니들이 칸칸이 자리잡고 있다. 일이 많아 책을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책가도>를 보며 정조는 마음을 풀었다지만, 책가도 안에 그려진 다양한 기물들에 홀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자본주의 욕망에



프라 안젤리코, 수태 고지
1440년경, 187x157cm
© 피렌체 산 마르코 미술관

눈을 뜬 조선 후기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책가도>를 두고 싶어 한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림 안의 기물들이 실제로 집에 있었으면 하는 채움의 욕망이 <책가도>를 유행시켰으리라 짐작해 본다. 한편으로는 진짜 채움이 아닌 <책가도>로 대신하며 마음을 비워낸 선조들의 고심이 보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레 생기지 않았을까.

비움과 채움을 유연하게 섞는 지혜

비움과 채움은 이렇게 서로 공존하며 맞물려왔다. 비우고 채우는 것은 방향성일 뿐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비운다는 것은 무엇이든 새롭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채운다는 것은 나의 취향을 큐레이션 하는 것이라고 보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비우고 무작정 채우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비움과 채움을 유연하게 섞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적절하게 비우고 적절하게 채우는 미학을 우리의 삶 전체에 확장해 적용한다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

책가도(冊架圖), 10폭 병풍, 비단에 채색, 149.5x450cm, 19세기 © 가나아트센터



조선 후기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책가도>를 두고 싶어 한 것은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진짜 채움이 아닌 <책가도>로 대신하며 마음을 비워낸 선조들의 고심이 보이기도 한다.



조르조 모란디, Still Life, 1951 © DACS

글 박소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5년에 퇴사했다. 현재 프로젝트10019 대표이자 아트디렉터. 전시 기획 및 평론, 기업의 아트 프로젝트와 함께 《여성조선》에서 아트칼럼을 2년째 연재하고 있다. 주식회사 트레바리에서 아트 관련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다.

고맙고 따스한 예술의 어깨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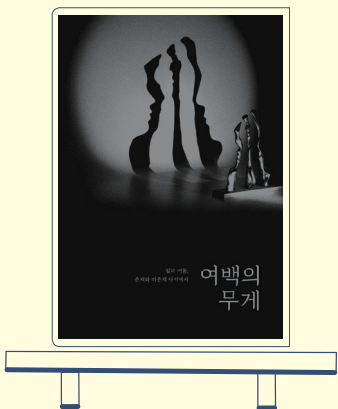
ART N CULTURE 이념의 책과 음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자 김신지 | 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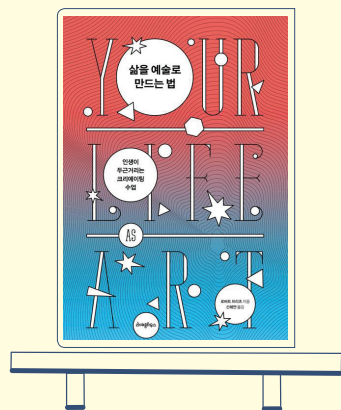
《평일도 인생이니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목격자로 사는 법을 노래했던 작가 김신지가 이번에는 마음속 깊은 호수머니에서 '시간'이란 낱말을 꺼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빠서 나빠지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알아챈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시간’뿐임을 깨닫는다. 시간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던 삶으로 걸어 들어가 원하던 자신이 되어갔다는 자전적 에세이다.



여백의 무게

저자 안경진 | 에테르

조각가 안경진의 《여백의 무게》는 ‘빛과 어둠,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라는 부제처럼 작품과 창작에 관한 조각가의 더 깊은 사유와 철학을 담았다. ‘그림자 조각’은 물론 조각가의 더 많은 작품 사진도 수록됐다. 1장은 예술을 업으로 하는 인간이 자신의 삶과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는 에세이이며, 2장은 안경진 조각가의 다양한 작품 사진과 작가가 직접 쓴 작품 해설과 작업기다. 첨단 기술과 가상현실이 화두인 21세기, 손으로 빛은 조각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화두가 묵직하다.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

저자 | 로버트 프리츠 | 번역 신혜연 | 라이팅하우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곡을 쓰고, 시인이 시를 짓는 것처럼, 예술에서 쓰이는 창조의 원리를 적용해서 인생을 예술 작품처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 저자 로버트 프리츠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최소 저항의 법칙》 이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창조성에 관한 자신만의 독창적 이론을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에 이르러 원숙한 목소리로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 ‘어떻게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창조 프로세스의 실재와 그 메커니즘, 지향성, 인간 정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밝혀낸다.



연광철, 한국 가곡 <고향의 봄>

독일어권 성악가 최고 영예인 ‘카머젠가’(Kammersanger·궁정가수) 호칭을 받은 세계 최정상 베이스 연광철이 첫 한국 가곡 음반 <고향의 봄>을 발매했다. 범접할 수 없는 성량과 테크닉을 지닌 연광철이 성악적 발성 대신 힘을 빼고 담담하게 읊조리듯 무반주로 부른 ‘고향의 봄’은 너무나 서정적이다. 성량만을 앞세우거나 표현에 욕심을 내는 가창이 아닌 ‘더 덜어내고 덜 치장해 마음을 동여매는 절제’가 가슴에 와닿는다. 이외에도 ‘비목’, ‘청산에 살리라’ 등 18곡이 함께 수록됐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이 떨어지는 건, 지구 한끝에서 누군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술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어루만지며 삶을 위로해 준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사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토닥토닥 쓰다듬어주는 예술, 오늘따라 어깨 한편이 따뜻하다면 예술이 함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상민, 디지털 싱글 <가슴을 채운다>

김상민의 디지털 싱글 <가슴을 채운다>는 최근 찾아보기 힘든 록 발라드의 감성으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원한 목소리로 슬픈 사랑의 감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번 싱글은 3가지 버전으로 이뤄져 있으며, 같은 곡을 각각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피아노, 어쿠스틱 버전은 세션들과 함께한 라이브 느낌으로 연주해 완성도뿐만 아니라 공연 상황과도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녹음됐다. 특히 저음과 중음을 더욱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절제되고 호소력 짙은 그만의 창법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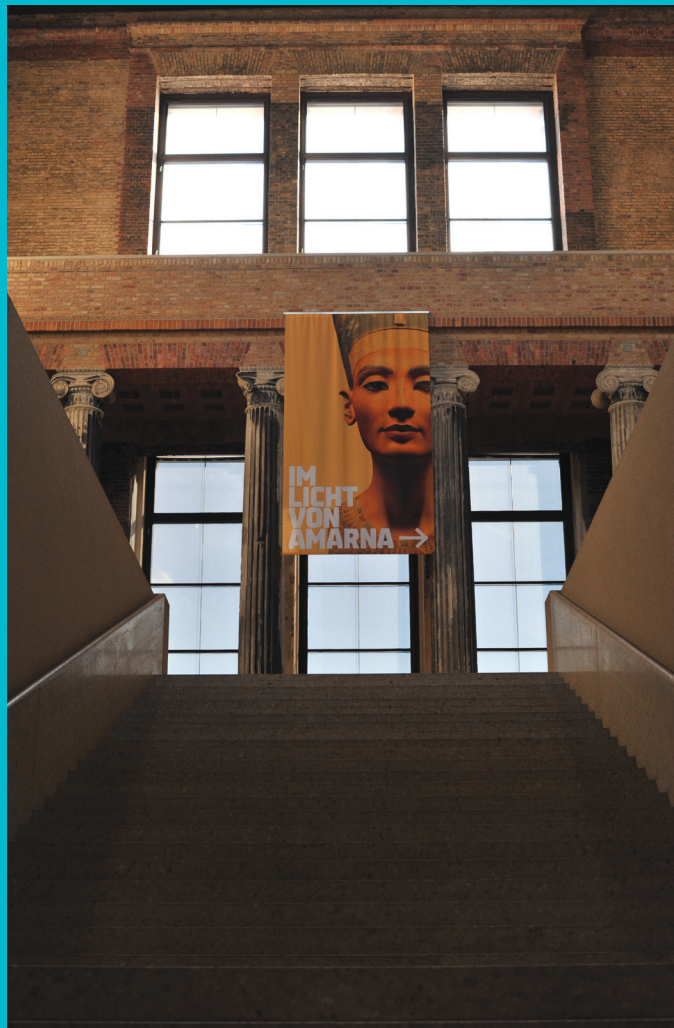
추다해차지스,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재담과 춤은 물론이고 시크한 유머와 특유의 쿨함,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이 정확한 성격까지 갖춘 아티스트 추다해. 그는 원색에 가까운 보이스와 주체할 수 없는 끼, 탄탄한 실력으로 밴드, 전통, 연극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펑크(funk & 굿)’를 주제로 한 <오늘밤 당산나무 아래서>는 실험적 앨범이자 자신만의 색채로 가득 찬 ‘추다해차지스’의 첫 정규앨범이다. 9곡의 수록곡은 펑크와 힙합 사운드를 전통 무가(굿 음악)와 절묘하게 빚어냈다는 평이다.

일상의 여백을 채우고 메우는 예술

알테·노이에·모데르네, 뮌헨의 박물관 지구

단 1유로만 있으면 된다.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의 돈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 무려 세 개의 방대한 박물관 컬렉션을 1유로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매달 한 번씩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이에 피나코테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흉상이다. 곳곳에 네페르티티 흉상의 아름다움을 예고하는 포스터나 배너가 펼쳐진다. © 이승원 작가



ART N CULTURE 컬처로드



뮌헨 모데르네 피나코, 로버트 마더웰의 작품 앞에서 미소 지었다. '사랑해'라는 언어를 그림으로 만든 화가의 재치가 눈부시게 반짝인다. © 이승원 작가

풍요로운 미적 체험, 단돈 1유로

뮌헨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숨 막히는 자본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필자는 여행을 통해 그런 영혼의 비상구를 찾아 헤맨 것이었다. 뮌헨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오직 1유로'만으로 이 모든 박물관들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다. 한 달에 하루 반짝 시간을 내면 이 모든 위대한 작품들을 1유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감한 정책은 '공공장소의 예술 체험'에 대한 행정가들의 깊은 이해 없이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은 누구나 이토록 풍요로운 미적 체험을 허락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길이 아닐까.

그 세 개의 박물관은 바로 알테 피나코테크, 노이에 피나코테크, 모데르네 피나코테크다. 어떻게 하면 이곳의 아름다움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한곳에 자리잡은 예술의 유토피아,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장소, 우리가 꿈꾸는 미술관의 모든 것. 이런 표현들이 즉각 떠오르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그 어떤 시간도 사라지지 않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한곳에 자리잡은 예술의 유토피아,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는 장소, 우리가 꿈꾸는 미술관의 모든 것... 그 어떤 시간도 사라지지 않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다.



고흐의 '해바라기' 또한 뮌헨의 알테 피나코테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이승원 작가



벨베데레미술관의 걸작, 클림트의 '키스' 앞에서 © 이승원 작가



예술의 감동이 마음에 뿌린
감동의 소나기가 언제든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므로.
당신에게도 내 마음속에
집을 짓기 시작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의 방들',
'치유 공간의 씨앗들'을
고스란히 선물해주고 싶다.

결핍 치유하는 은밀한 종합병원, 미술관

인류가 보낸 그 모든 시간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오롯이 살아남은 느낌. 뮌헨의 알테 피나코테크가 바로 그런 곳이 었다. 알테, 노이에, 모데르네로 이어지는 뮌헨의 박물관 지구는 인류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소중하게 보존해 놓은 아름다움의 보물창고 같은 장소였다. 알테(alte)는 독일어로 오래된 것, 옛것을 의미하고, 노이에(neue)는 새로운 것을, 모데르네(moderne)는 현대를 의미하는데, 이 세 장소를 방문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하루 만에 탐험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는 셈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결핍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이 끊임 없는 결핍감의 뿌리는 무엇일까' 일과 사랑과 가족, 꿈꾸 던 많은 것을 이미 가졌는데, 자꾸만 뭔가 치명적으로 부

족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인생에서 결핍된 무언가 때문에 끊임없이 헤매왔다. 마치 보물의 종류도 모른 채 지도에도 없는 보물섬에서 물도 식량도 아무런 대책도 없 이 헤매는 듯 막막했다. 엉뚱하게도 그 해답을 낚선 도시 의 미술관에서 찾았다. 아름다운 미술관에만 가면 이상하 게도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라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문학은 공기처럼, 물처럼 곁에 있었는데, 미술은 그렇지 않았다. 목마른 자가 직접 가서 찾아야만 했다. 책으로만 봐서는 결코 그 느낌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그곳에 반드시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미술 관에서 하염없이 한 그림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내 삶 을 비추어보는 행위. 미술관은 내 안의 알 수 없는 결핍감 을 한꺼번에 치유하는 은밀한 종합병원이었던 셈이다.

진정으로 거(居)하는 법을 배우다

상품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경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상품을 소비하 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지만 새로운 장소, 체험, 만남을 위해 쓴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다른 모든 소비 를 제치고 '여행'이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 된 것이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우 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장소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를 궁리하기 시작했 다.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베를린이나 런던에서 한 달 살기도 해보며, 어떤 장소에서든 잘 버텨내는 생존의 기술도 터득하고, 어떤 곳에서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 듣고 보고 배우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행이라는 일상의 비상구를 통해 '사랑하는 장소에 진정으로 거(居)하는 법'을 배웠다. 모든 여행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 모든 장소의 눈부신 아우라와 향기로운 정취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궁리 하기 시작했다. 어떤 장소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 장소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사람, 그 장소를 닮은 향기를 늘 간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신의 마음속 치유 공간을 짓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우리 마음속에 '자기만의 독립적인 방'을 만들어준다. 내 마음속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방은 물론 클로드 모네의 방, 파블로 피카소의 방, 조지아 오키프의 방, 마크 로스코의 방 등 수많은 아름다움의 비밀 처소들이 있 다. 치유 공간은 단지 지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뿐 아니라 지도에도 없는 곳, 주소조차 없는 곳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첫사랑의 설렘이 시작되던 장소나 처음으로 그 사람과 손을 잡은 장소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필자는 고흐의 방, 모네의 방, 클림트의 방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예술이라는 눈부신 별자리가 그려지기 시작하는 장소이기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마다, 이 세상이 내가 꿈꾸던 것만큼 따스하고 친 절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마다, 필자는 고흐를 생각하며 힘겨운 시간들을 버텼다. 바깥세상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고통과 충격으로 가득할 때조차도, '내 마음의 치 유 공간'에는 고흐의 별이 빛나고 있어 비로소 내 지친 마음이 쉴 수 있기에. 한 낮에도 눈을 감으면 군청색의 밤하늘과 레몬색의 별빛이 반짝이는 고흐의 별밤 이 마치 3D 영화처럼 내 마음속에서 입체적으로 떠오른다. 한낮에도 언제든 내 마음속 고흐의 별빛으로 잠겨 들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치유 공간을 지을 수 있다. 사랑하는 존재의 흔적 이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의 토양 속에 영원히 심음으로써. 고흐의 별빛이라는 씨앗, 모네의 수련이라는 씨앗, 클림트의 키스라는 씨앗이 내 마음속에 동지를 튼 한, 결코 어디서든 외롭지 않을 것이다. 예술의 감동이 마음에 뿌린 감동의 소나기가 언제든 내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것이므로. 당신에게도 내 마음속에 집을 짓기 시작한 그 수많은 '아름다움의 방들', '치유 공간의 씨앗들'을 고스란히 선물해주고 싶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는 한, 우리 는 끝내 이 슬픔과 우울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 테니. ♡



내셔널갤러리 쇠라의 작품 앞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긴 관객의 뒷모습 © 이승원 작가

글 정여울
KBS 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진행자. 네이버 프리미엄콘 텐츠 '살롱드뮤즈' 연재. 네이버 오디오클럽 '월간 정여울' 진행자. 《문학이 필 요한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공부할 권리》,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나의 어린 왕자》 등 저자

알고리즘과 개인을 벗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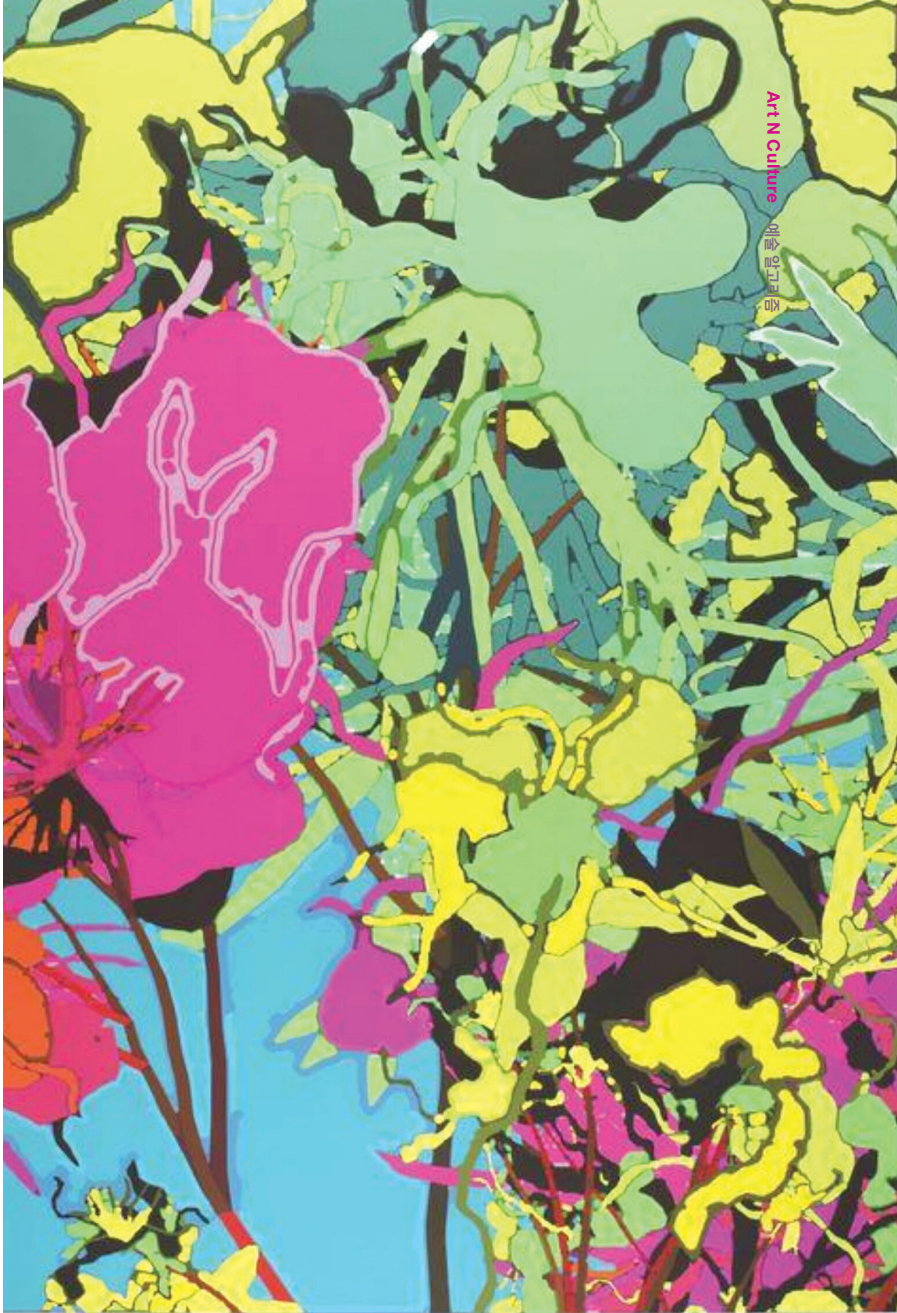
생성형 인공지능이 던지는 도전

AI가 내놓은 예술작품은 창작물인가?

인공지능(AI)이 내놓은 결과물도 창작물인가라는 의문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2월 오픈AI사는 동영상 제작용 생성인공지능 소라시를 공개한 것에 뒤이어, 3월 중순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기 미드저니사는 한 캐릭터를 여러 이미지에 걸쳐 재활용하는 기능을 발표했고, 스테이블 디퓨전사는 2D 이미지에서 3D 동영상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모두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구독형 서비스의 결과물은 창작물?

20세기에는 학문적 호기심이 인공지능 창의성 문제 논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거대 산업의 향방이 달린 문제로 바뀌었다. 이미 각국의 행정관청과 각급 법원들은 사람을 창작자로 인정한다는 결정과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점점 더 가능하기 어렵게 됐다. 구독형 서비스가 산출한 결과물은 창작물인가? 아니면 소라시로 제작한 광고 동영상을 경쟁사가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는 작동 원리도 다르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도 상이한 여러 인공지능들을 모두 ‘인공지능’으로 싸잡아 취급하는 양태도 있다. 실상은 수십 년 전부터 다양했다.



0305-08, 헤롤드 코언(2002), 프린트, 127x90cm. 런던 빅토리아&알버트(V&A) 박물관 소장. 작품의 명칭은 코언이 연필로 여백에 기입했다.

분리할 수 없는 단짝, 에런과 코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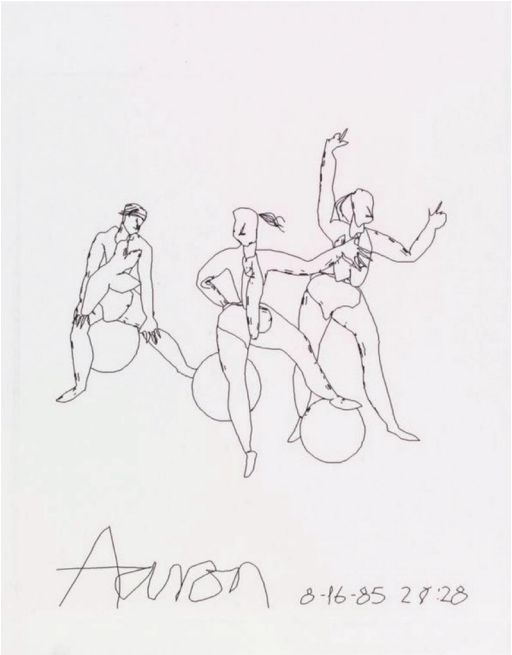
최초의 창작 인공지능 에런(AARON, 1973~2016)은 현재까지 등장한 모든 인공지능을 통틀어 가장 장기간(43년) 작동한 인공지능이기도 하다. 에런을 제작한 해럴드 코언(1928~2016)은 영국의 추상화가였다. 그는 1960년대에 영국을 대표해 여러 비엔날레에 참가했고, 1968년부터는 UC샌디에이고의 시각예술과에서 가르쳤다.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실험하던 ‘알고리즘 미술’을 접했다. 이는 기하학적 수식과 난수 발생기로 플로터(plotter, 정보를 도면화하는 출력 장치)를 제어해 작품을 출력하는 컴퓨터 미술 분야였다. 코언은 공학자들과 달리 소박하고 빠듯빠듯한 선에서도 예술성을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면 그런 선들이 보여주는 특성은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다. 그는 스탠퍼드대학의 존 매카시를 위시한 내로라 같은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순수 인공지능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것을 인공지능 에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에런은 코언이 전문가가 지닌 지식과 경험을 컴퓨터에 축적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하는 ‘전문가 시스템 방식 인공지능’이었고, 이는 1970년대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인공지능 개발의 최신 방법론이 적용된 결과였다. 에런이 정식으로 탄생한 1973년부터 코언이 타계한 2016년까지 에런과 코언의 미술은 함께 변화했다. 에런은 다른 그림을 ‘학습’한 적이 없으며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다. 그렇다면 에런은 독창적일까? 에런은 코언이 짜 넣은 규칙에 따라 선을 긋고, 코언은 에런이 내놓는 결과를 미학적으로 판단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창작자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에런과 코언은 하나의 피드백 회로에 묶인 존재였다. 코언의 임종을 맞이해 유족이 에런의 작동 정지를 결심할 정도로 에런과 코언은 분리할 수 없는 단짝이었다.



스테파니와 친구, 헤롤드 코언(1993). 캔버스에 아크릴 및 플로터 펜, 137.2×198.8cm. 뉴욕 휘트니 박물관 소장

창작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현행 서비스들이 못마땅하지만,
그런 서비스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창작성과 저작권의
근원을 더 깊이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28, 에런(1985), 드로잉, 28x21.2cm. 런던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 소장. 코언은 이 작품을 에런의 작품으로써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자신이 “20:28”이라고 명명했다. 에런은 날짜와 서명도 작품의 일부로 함께 출력했다.

창작물·창작자의 분신, 인공지능 이처럼 한 개인의 삶과 그가 만든 인공지능이 분리불가능한 예는 여럿 있다. 미국의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는 1990년대부터 “수십 년에 걸쳐” 자작한 인공지능 DEBUS를 만들고, DEBUS 명의로 발명특허와 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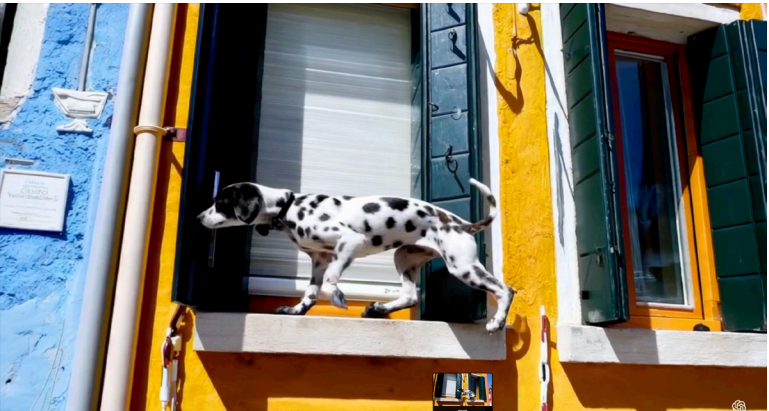
권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DEBUS 명의의 특허권과 저작권을 계속 거부당한 끝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길만 남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안창욱 교수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AI 가수 이봄’을 저작권자로 등록했다가 취소당했다. 철학적, 법률적 쟁점이야 어떻든 자신의 삶을 담아 완성한 인공지능이 어엿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인공지능이 자신의 창작물이고, 창작자라면 누구나 자기 작품을 자신의 분신처럼 느끼기 마련이니 말이다.

문제는 현재 화제를 모으는 인공지능경망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인공지능경망의 특성상 수식화할 수는 있어도 절차적 알고리즘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거대조직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마련한 설비에 많은 개발자들이 임무를 분담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든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개발도 이미 공개된 모델을 가져다 추가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독형 서비스로 활용하거나 인하우스 설비로만 사용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기존 창작물을 대량 수집해서 몇십 자의 프롬프트만으로 결과물을 내놓는다. 개개의 결과물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작년 초에 나온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은 당장은 탁월하다.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스티븐 탈러(2018). 2018년 탈러는 이 ‘작품’을 인공지능이 소유자인 자신을 위해 창작한 직무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했다. 이후 이어진 소송전의 최신 판결안은 2023년 8월 워싱턴DC 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비인간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탈러 측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라AI가 제작한 동영상의 스틸 컷. 현행 해석에 따르면 오픈AI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회사 상표(화면 우하단)에 대한 상표권만이 확실하다.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 6쪽 컷(4-1) “새벽의 자리야”의 개별 컷은 AI의 산출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 전체 구성과 대사는 카시타노바가 저작권자인데,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각국어 번역 버전을 소개했다.

AI 출력물 가이드라인 갑론을박 2022년 9월 작가 크리스 카시타노바는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

다. 창작 순간 발생하는 저작권은 등록을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 방어가 용이하다. 그러나 ‘새벽의 자리야’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미드저니를 이용한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저작권청은 일단 등록을 보류했고 2023년 2월 ‘제한적 등록’을 결정했다. 미드저니가 출력한 이미지들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되, 이미지들의 배열, 대사, 스토리 등 그래픽 노블의 구성은 카시타노바의 창작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겠다는 것이었다. 카시타노바와 미드저니 쪽은 저작권이 일부 인정됐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을 따라 2023년 12월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도 AI 출력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AI 출력물의 배열에 대해 인간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등록받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분간 몇 년은 이런 잠정적 결정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문제들은 뻔히 예견된다. 소라AI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배열의 단위는 무엇일까? 스틸컷 한 장에 서부터 짧은 클립이나 신(scene) 하나까지 여러 후보가 있다. 또 기가픽셀급 그림 파일은 여러 요소의 결합인가 아니면 그림 파일 전체로써 한 단위인가? 이런 질문들을 기술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면 곧 또 다른 혼란이 닥쳐올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력물을 내놓는데 소요되는 자원보다 출력물들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창작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현행 서비스들이 못마땅하지만, 그런 서비스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창작성과 저작권의 근원을 더 깊이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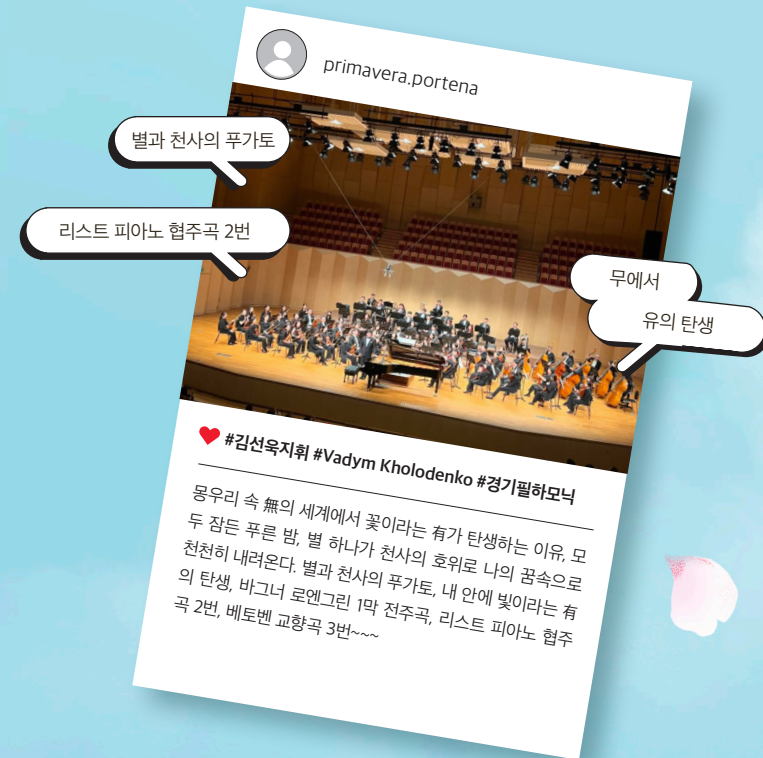
우리는 콜라주 작품이나 몽타주 작품의 창작성을 회화의 창작성과 구별하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출력작의 작품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시 구성의 독창성을 논한다. 여기에는 신문이나 사전 또는 글모음집 편집 이상의 무엇이 작동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개별자를 넘어 모음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은 미학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

글 이관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와 동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초창기 컴퓨터 물리학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이래 동국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엔지니어, 컴퓨터, 원자력이 현대 사회와 관계를 맺어온 양식의 변화를 연구한다.

BIMONTHLY FEED

#독자참여 #SNS 공연리뷰

오랜만에 본 입체낭독극.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는 관객, 30대 젊은 나이의 지휘자에 폭 빠진 관객은 그에게 외사랑을 고백했고, 심지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감탄까지 했습니다. 경기필의 뛰어난 연주력, 박력 있는 지휘 그리고 두 번의 앵콜은 기분 좋은 덤이었습니다.



GGAC GIFT

여러분의 소중한 리뷰를 <예술과만남>과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경기아트센터 #문화예술 #공연 등 해시태그 달면 참여 완료!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스터즈 시리즈II

말러 교향곡 1번

지휘 김선욱 | 바이올린 마크 부쉬코프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J. Sibelius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47

Violin Concerto in d minor, Op.47

G. Mahler

말러 교향곡 1번 D장조 '거인'

Symphony No.1 D Major 'Titan'



2024
5.23 THU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19:30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2024
5.24 FRI 롯데콘서트홀 19:30
R 8만원 S 6만원 A 5만원 B 3만원 C 2만원

예매 수원) 인터파크 1544-2344 | 서울) 인터파크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문의 031-230-3324

관람가 초등학생 이상



58

GGAC VLOG

관계자 외 출입금지, 봉인 해제
백스테이지의 주인공 무대감독

60

담당자의 노트

경기아트센터 사무 현장을 접하다
홈페이지 담당자의 노트

62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뉴스

64

CALENDAR

4·5월 주요 공연 일정

66

예술과만남 ON!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만남

GGAC STORY



관계자 외 출입금지, 봉인 해제

: 백스테이지의 주인공 무대감독 VLOG

GGAC STORY GGAC VLOG



경기아트센터 무대감독
이 알려주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백스테이지. 이 세상 모든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관객에게 양질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숨은 공간, 무대 뒤 주인공인 무대감독이 알려주는 백스테이지 봉인 해제! 경기아트센터 백스테이지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한다.



#1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다목적 대극장인 만큼 다양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출연진 동선 등 관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공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실제로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감 못지않게, 백스테이지에는 공연을 만드는 스태프들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

대극장 하수 공간입니다. 뒤쪽의 무대를 가리고 극적인 변화를 잡기 위한 흑막, 측면 공간과 세트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게 가리는 다리막(사이드·드로우 커튼) 등이 분주히 움직이는 공간인데요. 다리막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봤을 때 사람의 다리 위치에 커튼이 내려오기 때문에 붙여진 한국식 용어입니다.



#4

여기가 바로 무대감독이 공연 중에 위치하는 SM데스크입니다. 공연시작 콜과 출연자 입장, 각 파트(조명, 영상, 음향, 기계 등) 감독님들과 무전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무대감독은 공연뿐만 아니라 객석, 로비 등도 수시로 파악해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공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사람이지요.

무대감독은 보이지 않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빠른 음악에는 빠르게, 느린 음악에는 느리게 회전해요!

#3

경기아트센터 주무대 바닥에 있는 회전무대입니다. 보통 무대 가운데에 있으며 원형 바닥이 회전해 공연의 장면전환과 연출 의도 및 음악속도에 따라 효과를 주는 무대입니다.



#5

피아노 보관실입니다. 공연장에서 사용하는 피아노는 워낙 고가예다가 예민한 악기이기 때문에 24시간 항상 항온항습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VIP 대기실, 드레스룸 등 넓고 쾌적한 공간들로 가득합니다.



#6

지금까지 경기아트센터 백스테이지 투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하나의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최고의 시설로 최상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 백스테이지는 이렇게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인드마크로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김봉곤 경기아트센터 무대감독실 부장
무대감독실 소속으로, 2004년 경기아트센터에 입사해 20년 동안 무대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 사무 현장을 접하다

홈페이지 담당자의 노트



기관의 얼굴이자 대문, 홈페이지

처음 맡은 업무는 언론에 보도된 경기아트센터의 홍보자료들을 정리하는 일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예술을 알리고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기관의 목적이므로 홈페이지는 고객과 만나고 소통하는 기관의 대문이자 얼굴이다. 그래서 새롭게 단장하기도 하고, 홍보물을 게시하기도 하는 알림과 소통의 과정이 부단히 필요한 매개체다.

다양한 공연·전시·교육 등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과 SNS 등 매체에 알리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관 부서의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분주히 이뤄지고 있다.

홈페이지는 고객과 만나는 기관의 얼굴이자 대문!

경기아트센터의 사무보조 기간제로 업무를 한다는 설렘과 낯설음으로 기관을 접하게 됐을 때 극단, 무용단, 클래식, 국악, 팝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다루는 기관임에 놀랐고, 수원 경기아트센터와 용인의 국악원 두 기관의 공연장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제공하는 규모에 한 번 더 놀랐다.



GGAC STORY
담당자의 노트



소통과 기록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

물론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공공기관의 사무업무는 특수한 문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라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려움과 난처함의 연속이었다. 다른 부서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막막함으로 공공대다가 몇 달 먼저 온 선배에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라며 살며시 물어볼 때도 있다. 기록물 어디를 보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옆 동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진작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할 것을...

매일매일 다양한 과제가 생겨나지만 그때마다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선배와 상관의 업무처리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기존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기관 인트라넷에 쌓인 연속된 기록물들을 통해 해답을 찾아나가는 해안...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배의 경험으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다.

경기아트센터에 근무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

우선 직원들에게 문화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부여한 점이 좋았다. 사실 일 년에 공연과 전시를 과연 몇 번이나 볼까? 하는 반문은 모든 직장인들의 인지상정일 터. 이런 생리를 고려할 때 공연을 접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가족에게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점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또 '어디 가서 이런 가격에 식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한 구내식당이 존재할 줄이야. 가격과 맛의 가성비 비를 이룬 구내식당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매사에 똑 부러지고 열심인 MZ 세대들과의 만남이다. 사고방식의 차이로 다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과는 달리 현실에 잘 적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빠른 업무 처리능력과 센스 그리고 적절한 네거티브와 유쾌한 에너지의 조화로움은 나이와 이력을 떠나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극과 활력을 주는 '미래'라는 것을 느낀다.

현장에서 느끼는 치열함·인간미·감사함

경기아트센터에서의 일상은 조용한 듯 너무나 바쁘게 돌아간다.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다른 과제와 씨름하며 “쉽지 않네요”라고 멋쩍게 미소 짓는 선배의 치열함, 정신없이 결재 서류를 마무리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미소 짓는 동료의 인간미,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진중하게 심사숙고하며 중심과 방향을 잡아가는 상관의 균형감 그리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에서 느끼는 감사함까지... 이 모든 것이 일상의 현장임을 깨닫는다.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감히 어떻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를 묵묵히 수행하는 관리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경기아트센터의 살아있는 문화 생명력이 널리 깊게 퍼지길 기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글 **윤종길**
(경기아트센터 커뮤니케이션팀)

경기아트센터 커뮤니케이션팀 소속으로, 2023년 입사해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GAC NEWS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경기아트센터의 활동과
반가운 소식, 그리고
경기도예술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www.ggac.or.kr

04+05
2024 VOL.167

GGAC Story GGAC NEWS



경기아트센터 업무 효율성 강화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경기아트센터는 최근 직제 슬림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진행했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조직업무의 재배열과 연관성 높은 사업들에 대한 집중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조직 구조는 경영파트와 사업파트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기획실을 사장직속실로 변경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팀을 신설해 기존 홍보전략팀, 디지털콘텐츠사업팀, 고객소통팀의 업무를 통합하고, 공연기획팀은 경기도예술단을 활용하는 공연기획의 역할이 추가됐다. 예술단운영팀은 예술단 복무관리와 함께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국악운영팀이 새롭게 신설되어 기존 국악사업팀과 국악원운영팀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며, 대외사업팀은 문화나눔사업, 예술즐거찾기,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을 담당한다. 정책사업팀은 도 공기관대행사업 및 도 협력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아트센터는 1실, 1처, 5본부, 16팀, 4예술단에서 2실, 1처, 3본부, 12팀, 4예술단으로 직제가 재구성됐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도민 중심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기 경기청년예술 기획단 창작활동 지원 위한 활동 개시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첫 번째 기수에 이어 '제2기 경기청년예술 기획단'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2024년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연전시분과와 기획홍보분과 두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4월 9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작품 기획, 창작,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중간발표회와 작품발표회를 통해 그들의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1기 경기청년예술 기획단은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기청년예술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은 약 5개월 동안 도내 청년 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공연과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제2기 경기청년예술 기획단은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청년들의 창작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아트센터 2024년 감성맞춤 아카데미 강의 개시

경기아트센터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아카데미는 예술인문 강좌와 예술실기 강좌로 나뉘어 다양한 장르의 강의를 제공한다. 예술인문 강좌는 오페라, 클래식, 미술, 연극, 한국예술사 등을 포함하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마스터 시리즈 프리뷰 강좌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뮤지컬을 잘 감상하는 법 ABC' 강좌의 경우,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끈다. 예술실기 강좌 또한 동서양의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좌로 기획됐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수강생들의 호평에 힘입어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감성맞춤 인문학 아카데미를 선보이게 됐다"며 "합리적인 수강료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예술단 기자간담회

경기아트센터는 2024년 새해를 맞아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그리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김광보, 김경숙, 김성진 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각각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로, 2024년부터 2년간 해당 예술단을 이끌게 됐다. 김광보 경기도극단 예술감독은 민간극단 '극단 청우' 대표로서 연극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여러 공공 예술단체에서 예술감독으로 활약하며 예술성과 단체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예술감독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 예술단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전통무용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고, 무형문화재 보존에도 힘써왔다.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국악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휘자로서,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작곡가, 연주자들과 협업해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왔다. 한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해 9월 신임 예술감독으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김선욱 예술감독을 선임한 바 있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 경기도극단 김광보 감독, 경기도무용단 김경숙 감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김성진 감독(왼쪽부터)

04 April

GGAC Story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div></div>	6 <div>고전적 음악, 오후 I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265</div>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div>연극 <내 모든 걸> 금 19:30/토 15: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264</div>	20 <div>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경기화연(京義會宴)> 금 19:30/토 16: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31-230-3313</div>
						
21 <div>THE GREATEST : 전율 정동화X소향 - 수원 18:0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599-9354</div>	22	23	24	25	26 <div>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레퍼토리 <노랫가락> 19:30 경기도 대극장 문의 ☎031-289-6471~5</div>	27 <div>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토요상설공연 문화유산을 춤추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311~5</div>
28	29	30				

기획공연 ☎ 031-230-3440
경기도무용단 ☎ 031-230-3311~4

경기도극단 ☎ 031-230-3302~4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 031-289-6471~4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031-230-3321~5

대관공연 예술단기획공연 기획공연

0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div></div>	3 <div>경기도극단 <단명소녀 투쟁기> 금 19:30/토 14:00, 17:00/일 14: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302~4</div>	4
5	6	7	8	9	10	11
						<div>뮤지컬 <벚꽃 팝콘> - 수원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1599-9354</div>
12	13	14	15	16	17	18
						<div>창작뮤지컬 <꿈이 없어도 괜찮아> 14:00, 18: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265</div> <div>뮤지컬 <공룡이 살아있다> - 수원 11:00, 14:00, 16: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1800-6567</div>
19	20	21	22 <div></div>	23 <div>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 - 수원 19:3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문의 ☎031-230-3324</div>	24 <div>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II <말러 교향곡 1번> - 서울 19:30 롯데콘서트홀 문의 ☎031-230-3324</div>	25 <div>2024년 경기도무용단 레퍼토리 시즌 <토요상설공연 문화유산을 춤추다> 16:00 경기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031-230-3311~5</div> <div>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Weekend Concert <오후 4시: 다시, 청춘> - 용인 16:00 경기국악원 국악당(용인) 문의 ☎031-289-6471~5</div>
						

* 상기 공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관람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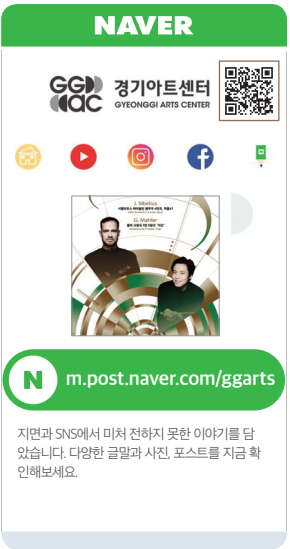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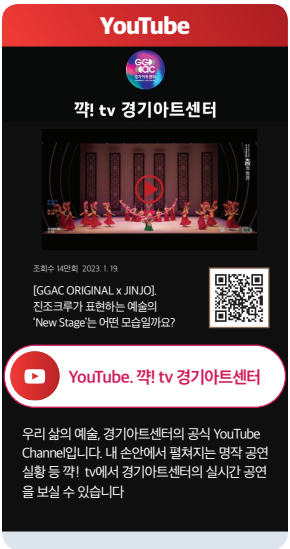
대관공연 예술단기획공연 기획공연

티켓문의 ☎ 031-230-3441~2 (평일 10:00~19:00, 주말 10:00~17:00)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예술과 만남

경기아트센터 매거진 <예술과만남>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만나보세요
e북,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에서 편리하게 매거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소식, 문화예술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채널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경기아트센터를
모바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만남'은 경기아트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매거진으로, 경기아트센터의 다양한 공연 소식을 비롯하여
국내의 문화예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 @magazineggac



